

2018년 한국기업경영학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추계학술대회 및 학술심포지엄

## 부동산 조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12:00~18:00

|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 주최 : 한국기업경영학회 · 한국지방세연구원

| 후원 :  Samkoo  KB금융지주



사단  
법인 **한국기업경영학회**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지방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존경하는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끝까지 다가온 11월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의 끝에 학회의 추계학술발표대회와 학술심포지엄 소식을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에서 개최함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학술심포지엄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주제는 「부동산 조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심포지엄에서는 중앙대학교 김진태 교수님,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님의 발제와 함께 업계 및 학계의 최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30여 편의 회원님들의 귀한 학술발표논문들은 사회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논의로 기업경영을 위한 선제적인 논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우수한 발표논문들에 대하여 ‘벽소학술상’ 시상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주)삼구아이앤씨의 구자관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벽소학술상을 수상하실 여러 연구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는 학회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계학술발표대회에는 여러 기관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KB금융지주가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회를 믿고 지지해주신 기관의 후원에 이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며 새 지평을 여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기업경영대상」 수상자로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나날이 도약해가는 우리 학회의 발전을 지켜보아 주실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미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여러 참여의 모습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기업경영 연구의 중심 장이 될 학회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3일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 정 기 만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정 성 훈 드림



## 2018년 한국기업경영학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추계학술대회 및 학술심포지엄

-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12:00~18:00
-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
- 주최 : 한국기업경영학회 · 한국지방세연구원
- 후원 : (주)삼구아이앤씨, KB금융지주

### ■ 전체 일정

| 시 간           | 일 정   | 장 소                  |
|---------------|---|----------------------|
| 12:00 ~ 12:50 | 이사회   | 양관 대회의실              |
| 13:00 ~ 13:20 | 기업경영대상 시상식  | 평생교육원 D406호          |
| 13:00 ~ 13:30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 D406호 앞 로비           |
| 13:30 ~ 14:20 | <b>개회식 및 학술심포지엄</b><br>▷ 논제 : 기업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br>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제언<br>▷ 발제 : 김진태(중앙대), 심충진(건국대)<br>▷ 사회 : 이해영(강남대)<br>▷ 토론 :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br>이우호(경남과기대)<br>박성용(웅지세무대) | D406호                |
| 14:20 ~ 14:30 | Coffee Break  | 로비                   |
| 14:30 ~ 15:40 | 분과별 논문발표 및 토론 I   | D403, 404, 407, 507호 |
| 15:40 ~ 15:50 | Coffee Break  | 로비                   |
| 15:50 ~ 16:50 | 분과별 논문발표 및 토론 II  | D403, 404, 407, 507호 |
| 17:00 ~ 17:30 | 벽소학술상 시상식 및 총회  | D406호                |
| 17:30 ~ 18:00 | 연구윤리교육  | D406호                |
| 18:00 ~       | 만찬  |                      |

### \* 문의

- ▷ 학 술 위 원 장 : 이성철 교수(강남대) 010-6741-0190
- ▷ 학회 사무국 사무간사 : 김강민 선생 010-8674-1887

## 학술심포지엄 일정

- .....
- **논제** : 기업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제언
  - **시간** : 13:30~14:20
  - **발제** : 김진태(중앙대), 심충진(건국대)
  - **사회** : 이해영(강남대)
  - **토론** :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이용호(경남과학기술대)  
박성용(웅지세무대)
  -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 D406호
  - **주체** : 한국기업경영학회 · 한국지방세연구원
  - **후원** : (주)삼구아이앤씨, KB금융지주
- .....

## 분과별 논문 발표 일정

### ◆ 전체 분과 배정 개요

| 시 간                 | 분과  |            | 장소   |
|---------------------|-----|------------|------|
| I 부<br>14:30~15:40  | 1분과 | 인사 · 조직 I  | D403 |
|                     | 2분과 | 재무 · 회계 I  | D404 |
|                     | 3분과 | 경영일반 I     | D407 |
|                     | 4분과 | 신진학자 I     | D507 |
| II 부<br>15:50~16:50 | 5분과 | 인사 · 조직 II | D403 |
|                     | 6분과 | 재무 · 회계 II | D404 |
|                     | 7분과 | 경영일반 II    | D407 |
|                     | 8분과 | 신진학자 II    | D507 |



● 제5분과 인사·조직 II [강의실 D403]

좌장: 김태명(세명대)

| 발 표 자   | 논 문 제 목  | 토 론 자     |
|---|--|-----------|
| 윤필현(인하공전)                                     | 전문대학 교수의 역할인식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셸프리더십의 조절효과                              | 임진혁(경기대)  |
| 임진혁(경기대)<br>이장희(건국대)<br>권혁(건국대)<br>김재형(서울진흥원) | 벤처중소기업 노동자의 4차 산업혁명 활용 및 인지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강무희(배재대)  |
| 송민수<br>(한국노동연구원)                              |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결정요인 패널분석   | 윤필현(인하공전) |

● 제6분과 재무·회계 II [강의실 D404]

좌장: 이장희(충북대)

| 발 표 자                            | 논 문 제 목                                  | 토 론 자      |
|----------------------------------|--|------------|
| 김승희(충북대)<br>이장희(충북대)<br>차종우(충북대) | 조세회피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하진환(대림대)   |
| 하진환(대림대)                         | 전력시장 운영현황과 민자 LNG 발전소 손익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성용(웅지세무대) |
| 이재춘(강동대)<br>주명수(강남대)             | R&D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 KOSDAQ 기업을 중심으로      | 박준우(청주대)   |

● 제7분과 경영일반 II [강의실 D407]

좌장: 김창봉(중앙대)

| 발 표 자  | 논 문 제 목   | 토 론 자      |
|--|---|------------|
| 황재원(한국교통대)<br>박경미(농협대)                           | IMF 외환위기와 한국재벌의 조직변화                                    | 김경애(국민대)   |
| 조정은(부경대)   |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 노경호(대림대)   |
| 김경진(한국교통대)<br>전순영(한국교통대)                         | 밀레니얼세대의 조직갈등이 조직몰입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수평적·수직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 황재원(한국교통대) |
| NGUYEN THI THU HOAI<br>(한국산업기술대)<br>이충석(한국산업기술대) | 한국과 베트남 가상 화폐 거래소 선택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 구장욱(웅지세무대) |

● 제8분과 신진학자 II [강의실 D507]

좌장: 이성철(강남대)

| 발 표 자                  | 논 문 제 목  | 토 론 자      |
|------------------------|--|------------|
| 박지선(송실대)<br>신호철(송실대)   | 도전적-방해적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 리더십 최적 매칭의 조절효과(소상공인의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 권혁(건국대)    |
| 어윤수(한경대)<br>신용재(한경대)   | 국내 생명보험사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신연수(중부대)   |
| 원윤정(이화여대)<br>백지연(이화여대) | A Study on Employee's Creativity and Core Self-Evaluations: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Culture and Supervisor's Emotional Intelligence | 전순영(한국교통대) |
| 박순봉(한경대)<br>신용재(한경대)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 연구에 관한 연구   | 임형록(한양대)   |

# 목 차

## 학술심포지엄

- 기업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제언 ..... 3  
김진태(중앙대), 심충진(건국대)

## 분과별 논문발표 및 토론 I

### 제1분과 인사 · 조직 I

- 한국판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 척도(UPSB-K)의 타당화 연구 ..... 22  
이강민(한양대), 전상길(한양대)
- 조직정체성이 조직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3  
장용선(조선대), 조대환(조선대)
- 부정적 피드백으로서 상사의 비인격적 행동이 피드백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갑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 ..... 24  
박경환(고려사이버대)

### 제2분과 재무 · 회계 I

- The Effects of IPOs and Cooperation Activities on Economic Performance  
and Job Creation of SMEs: Evidence from South Korea ..... 25  
박은일(성균관대), 권상집(동국대)
- The Determinants of KOSDAQ Firm's R&D Expenditure ..... 26  
전병문(CFO Academy), 윤병섭(서울벤처대), 이재춘(강동대)
- 이동통신원가 산정방안 연구 ..... 28  
고창열(제주대), 정진향(여주대), 천미림(청주대)
- Audit Partner Industry Expertise and Accounting Comparability ..... 30  
안혜진(홍익대), 최종학(서울대), 선우혜정(한국방송통신대)

### 제3분과 > 경영일반 I

- 韓國의 블록체인 政策 어떻게 할 것인가? ..... 31  
강철승(중앙대)
- 모바일 환경에서 관광상품 총동 구매에 대한 평가 ..... 32  
정남호(경희대), 엄태휘(경희대)
- 기업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33  
강무희(배재대)
- Experiential Rewards in Loyalty Programs ..... 34  
성정연(성결대), 박승배(서일대)

### 제4분과 > 신진학자 I

- 구성원의 일-가정균형만족이 육아휴직제도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35  
우주연(송실대), 오한결(송실대)
- 직장 내 감정노동에 대한 질적연구: 비서직 종사자 중심으로 ..... 36  
김민아(이화여대)
- The Determinants of Bank Profitability: Evidence from Listed Banks in Mongolia ..... 38  
신용재(한경대), 체첵델게르히식델게프(한경대)
- 베이비시터 이용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 타기관 서비스의 현황과 비교 ..... 39  
최지연(송실대), 이미지(송실대), 신정아(송실대), 조한나(송실대), 조희주(송실대), 광원준(송실대)

## 분과별 논문발표 및 토론 II

### 제5분과 > 인사·조직 II

- 전문대학 교수의 역할인식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 ..... 41  
윤필현(인하공업전문대)
- 벤처중소기업 노동자의 4차 산업혁명 활용 및 인지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42  
임진혁(경기대), 이장희(건국대), 권 혁(건국대), 김재형(서울산업진흥원)
-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결정요인 패널분석 ..... 43  
송민수(한국노동연구원)

## 제6분과 > 재무·회계 II

- 조세회피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44  
**김승희(충북대), 이장희(충북대), 차중우(충북대)**
- 전력시장 운영현황과 민자 LNG 발전소 손익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45  
**하진환(대림대)**
- R&D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 KOSDAQ 기업을 중심으로 ..... 46  
**이재춘(강동대), 주명수(강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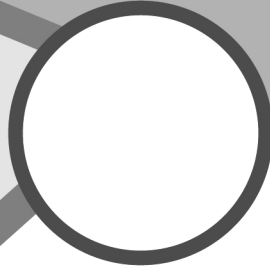
## 제7분과 > 경영일반 II

- IMF 외환위기와 한국재벌의 조직변화 ..... 47  
**황재원(한국교통대), 박경미(농협대)**
-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 48  
**조정은(부경대)**
- 밀레니얼세대의 조직갈등이 조직몰입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수평적·수직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 49  
**김경진(한국교통대), 전순영(한국교통대)**
- 한국과 베트남 가상 화폐 거래소 선택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 51  
**NGUYEN THI THU HOAI(한국기술교육대), 이충석(한국산업기술대)**

## 제8분과 > 신진학자 II

- 도전적-방해적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리더십 최적 매칭의 조절효과(소상공인의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 52  
**박지선(승실대), 신호철(승실대)**
- 국내 생명보험사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에 관한 연구 ..... 53  
**어윤수(한경대), 신용재(한경대)**
- A Study on Employee's Creativity and Core Self-Evaluations: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Culture and Supervisor's Emotional Intelligence ..... 54  
**원윤정(이화여대), 백지연(이화여대)**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 연구에 관한 연구 ..... 55  
**박순봉(한경대), 신용재(한경대)**





# 학술심포지엄

.....

기업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제언

김진태(중앙대), 심충진(건국대)



## 기업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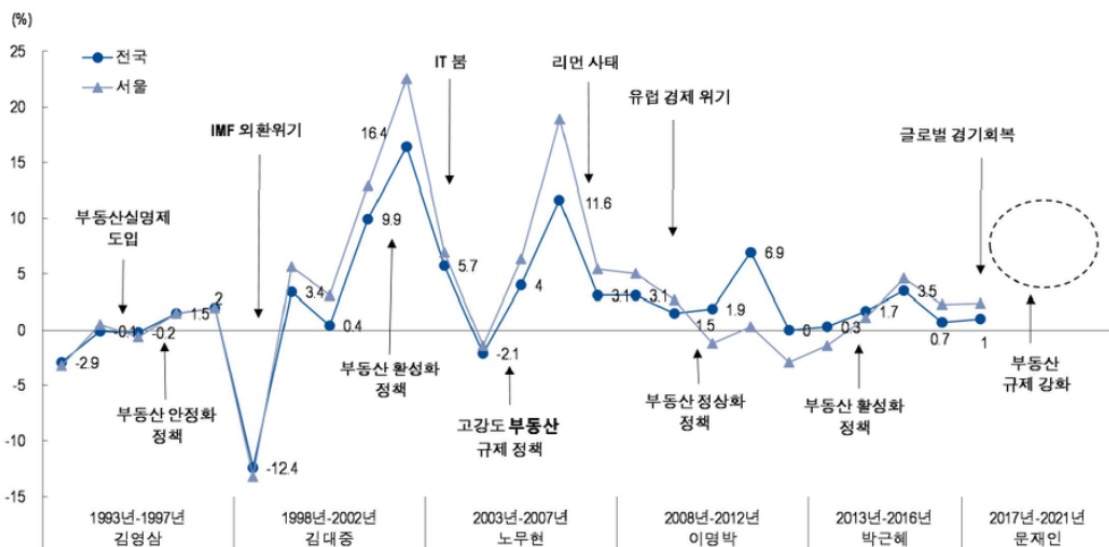
김진태(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심충진(건국대학교 경영대학)

### I. 서론

- 우리나라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완화 또는 규제로 차별적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시장 반응은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났음
  - 정부별 부동산 정책 방향은 완화 정책과 규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김영삼 정부의 경우 부동산 실명제 도입,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 완화에 초점을 두었음
    - 김대중 정부의 경우 부동산 정책은 주택경기 활성화, 건설산업 활성화, 주택건설 촉진 등 완화에 초점을 두었음
    -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규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이명박 정부의 경우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대책 등 완화에 초점을 두었음
    -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전월세 대책, 주거안정 대책, 전매규제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 등 완화에 초점을 두었음
    -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강화, 주택시장 질서 확립, 재건축 규제 강화, 과열지역 투기수요유입 차단 등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정부별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상반된 반응을 보여 왔음
    - 김영삼 정부의 경우 부동산 완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pm 3\%$  이내의 변동을 보였음
    - 김대중 정부의 경우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주택매매가격이 폭락(-12.4%)한 이후 완화 정책을 통해 최대 9.9%의 주택매매가격 증가가 되었음

- 노무현 정부의 경우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매매가격이 -2.1%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11.6%까지 증가하였음
- 이명박 정부의 경우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주택매매가격이 1.5%에서 3%까지 변동하였음
- 박근혜 정부의 경우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주택매매가격이 0.3%에서 3.5%까지 변동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경우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택매매가격은 2.56% 증가하였음



주) 한국감정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참조

<그림 1> 정부별 주택매매가격 변동율

-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수 또한 영향을 받고 있음
  -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있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부동산 매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에 육박하였음
  -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완화 정책이 있었던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기존 2007년 및 2008년의 50%에 불과하였으며,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에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표 1> 연도별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수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정부 세수       |           | 비 중   |
|--------|-------------|-----------|-------|
|        | 내국세         | 종합부동산세    |       |
| 2006년도 | 113,879,497 | 1,327,511 | 1.17% |
| 2007년도 | 132,508,138 | 2,414,256 | 1.82% |
| 2008년도 | 136,556,310 | 2,129,862 | 1.56% |
| 2009년도 | 136,476,881 | 1,207,101 | 0.88% |
| 2010년도 | 143,506,090 | 1,028,932 | 0.72% |
| 2011년도 | 159,601,755 | 1,101,864 | 0.69% |
| 2012년도 | 169,771,343 | 1,131,106 | 0.67% |
| 2013년도 | 168,845,809 | 1,224,321 | 0.73% |
| 2014년도 | 174,111,888 | 1,307,211 | 0.75% |
| 2015년도 | 185,240,338 | 1,399,035 | 0.76% |
| 2016년도 | 209,401,319 | 1,293,892 | 0.62% |

주)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별 자료 참조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향에 관한 논의는 개인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향은 개인 보다는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법인 보다 개인이 월등히 많으나, 납부세액은 개인 보다 법인이 월등히 높음
  - 201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약 33만 6천명이었으며, 이중 개인은 31만 7천명(94.45%)이고 법인은 1만 9천명(5.55%)이었음
  -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전체 세액은 1조 5,298억원이었으며, 이중 개인 세액은 4,256억원(27.82%)이고 법인은 1조 1,042억원(72.18%)이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향을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II. 부동산 관련 조세 및 기업의 부동산 보유 현황

-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제도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내용이 다름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업은 취득세를 부담하며, 취득세 부담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담함
    -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1%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됨
    - 주택 이외의 토지, 건물, 상가의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4.6%의 세율이 적용됨
    - 원시취득(신축)의 경우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3.16%의 세율이 적용됨
    - 상속 및 증여의 경우 일반, 농지, 1가구 1주택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최소 0.8%에서 최대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에서 4%의 세율이 적용됨
    -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서민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됨
  -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기업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담함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0.5%에서 최대 2%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됨
    -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0.75%에서 최대 2%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됨
    -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0.5%에서 최대 0.7%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됨
  -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기업은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지역 소재 부동산, 주택 및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임
    - 다만,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특정지역 소재 부동산, 주택 및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법인세법 55조의2)

□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

-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부담하는 취득세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 연도별 지방세 및 취득세 세수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지방세        | 취득세        | 비 율    |
|--------|------------|------------|--------|
| 2006년도 | 41,293,702 | 7,667,482  | 18.57% |
| 2007년도 | 43,524,289 | 7,261,465  | 16.68% |
| 2008년도 | 45,479,732 | 6,916,039  | 15.21% |
| 2009년도 | 45,167,790 | 6,643,871  | 14.71% |
| 2010년도 | 49,159,805 | 6,824,895  | 13.88% |
| 2011년도 | 52,300,144 | 13,876,536 | 26.53% |
| 2012년도 | 52,300,144 | 13,876,536 | 26.53% |
| 2013년도 | 53,778,881 | 13,317,603 | 24.76% |
| 2014년도 | 61,725,013 | 16,391,220 | 26.56% |
| 2015년도 | 70,977,815 | 20,810,277 | 29.32% |
| 2016년도 | 75,531,651 | 21,701,648 | 28.73% |

주)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별 자료 참조

-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인원은 2007년 48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9년 21만명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6년 33만명까지 증가하였음
- 납세대상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 보다 개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납세액의 경우 개인 보다 법인의 세액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3>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 합계      |           | 개인      |           | 법인     |           |
|--------|---------|-----------|---------|-----------|--------|-----------|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006년도 | 70,676  | 1,717,958 | 62,089  | 767,169   | 8,587  | 950,789   |
| 2007년도 | 482,622 | 2,767,130 | 468,529 | 1,573,116 | 14,093 | 1,194,014 |
| 2008년도 | 412,543 | 2,328,039 | 398,382 | 1,093,880 | 14,161 | 1,234,159 |
| 2009년도 | 212,618 | 967,722   | 202,629 | 318,484   | 9,989  | 649,238   |
| 2010년도 | 250,214 | 1,086,171 | 239,626 | 360,676   | 10,588 | 725,495   |
| 2011년도 | 248,477 | 1,137,072 | 237,470 | 354,367   | 11,007 | 782,705   |
| 2012년도 | 273,955 | 1,242,703 | 261,640 | 373,748   | 12,315 | 868,955   |
| 2013년도 | 246,197 | 1,307,424 | 233,124 | 345,318   | 13,073 | 962,106   |
| 2014년도 | 252,042 | 1,297,215 | 236,887 | 345,632   | 15,155 | 951,583   |
| 2015년도 | 283,064 | 1,407,837 | 266,280 | 371,530   | 16,784 | 1,036,307 |
| 2016년도 | 335,591 | 1,529,790 | 316,969 | 425,620   | 18,622 | 1,104,170 |

주)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별 자료 참조

- 부동산 보유시 부담하게 되는 재산세의 경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까지 소폭 감소하였음

<표 4> 연도별 지방세 및 재산세 세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지방세 합계     | 재산세       | 재산세 비중 |
|--------|------------|-----------|--------|
| 2006년도 | 41,293,702 | 3,108,975 | 7.53%  |
| 2007년도 | 43,524,289 | 3,755,133 | 8.63%  |
| 2008년도 | 45,479,732 | 4,411,330 | 9.70%  |
| 2009년도 | 45,167,790 | 4,423,306 | 9.79%  |
| 2010년도 | 49,159,805 | 4,817,329 | 9.80%  |
| 2011년도 | 52,300,144 | 7,616,716 | 14.56% |
| 2012년도 | 52,300,144 | 7,616,716 | 14.56% |
| 2013년도 | 53,778,881 | 8,265,136 | 15.37% |
| 2014년도 | 61,725,013 | 8,779,080 | 14.22% |
| 2015년도 | 70,977,815 | 9,293,705 | 13.09% |
| 2016년도 | 75,531,651 | 9,929,915 | 13.15% |

주)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별 자료 참조

## □ 부동산 관련 보유세의 적정성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0.8%로 OECD 평균 1.1% 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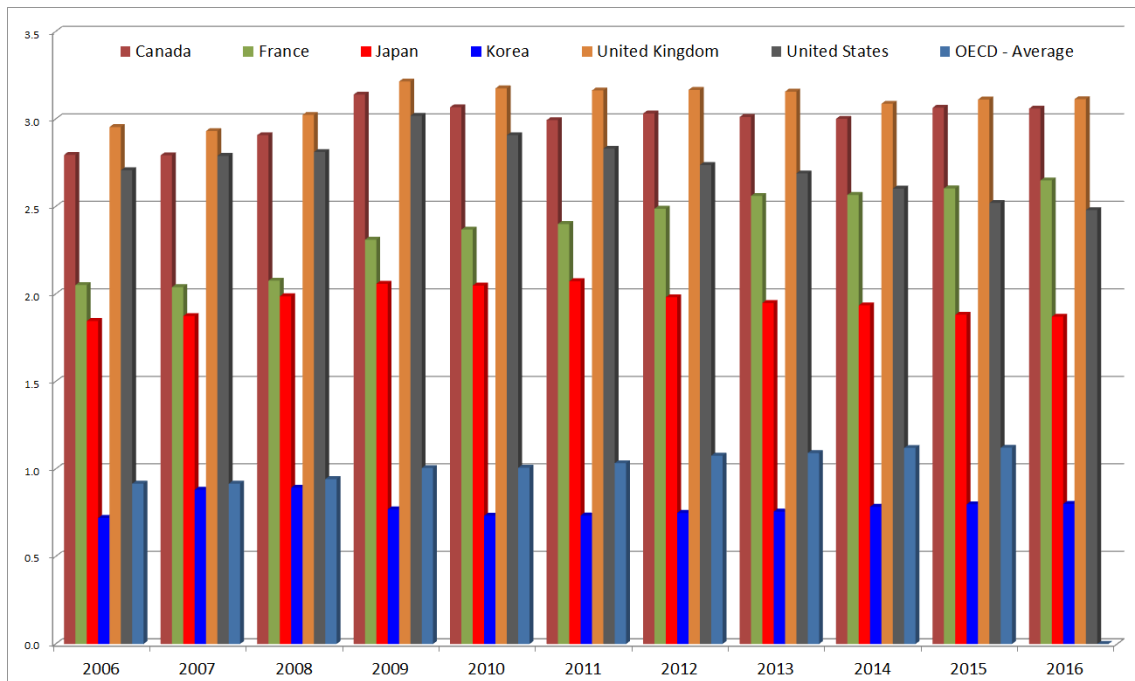
- GDP 대비 부동산 관련 보유세가 낮은 국가는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등임
-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GDP 대비 부동산 관련 보유세 2.5%이며,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 수준임

<표 5> 부동산 관련 보유세 국제 비교(GDP 대비)

| 국가명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Australia      | 1.4        | 1.3        | 1.4        | 1.4        | 1.4        | 1.4        | 1.4        | 1.5        | 1.6        | 1.7        | .          |
| Austria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 Belgium        | 1.2        | 1.2        | 1.2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 Canada         | 2.8        | 2.8        | 2.9        | 3.1        | 3.1        | 3.0        | 3.0        | 3.0        | 3.0        | 3.1        | 3.1        |
| Chile          | 0.6        | 0.5        | 0.6        | 0.7        | 0.6        | 0.6        | 0.6        | 0.6        | 0.6        | 0.7        | 0.7        |
| CzechRepublic  | 0.1        | 0.1        | 0.1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 Denmark        | 1.1        | 1.1        | 1.2        | 1.3        | 1.3        | 1.3        | 1.3        | 1.3        | 1.3        | 1.4        | 1.4        |
| Estonia        | 0.2        | 0.2        | 0.3        | 0.3        | 0.3        | 0.3        | 0.3        | 0.3        | 0.3        | 0.3        | 0.3        |
| Finland        | 0.5        | 0.5        | 0.5        | 0.5        | 0.6        | 0.6        | 0.6        | 0.7        | 0.7        | 0.8        | 0.8        |
| France         | 2.1        | 2.0        | 2.1        | 2.3        | 2.4        | 2.4        | 2.5        | 2.6        | 2.6        | 2.6        | 2.6        |
| Germany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 Greece         | 0.2        | 0.2        | 0.2        | 0.3        | 0.2        | 1.2        | 1.5        | 1.5        | 1.9        | 2.0        | .          |
| Hungary        | 0.3        | 0.3        | 0.3        | 0.3        | 0.3        | 0.4        | 0.4        | 0.6        | 0.6        | 0.6        | 0.6        |
| Iceland        | 1.4        | 1.5        | 1.7        | 1.7        | 1.8        | 1.7        | 1.6        | 1.6        | 1.6        | 1.6        | 1.5        |
| Ireland        | 0.6        | 0.6        | 0.7        | 0.8        | 0.8        | 0.8        | 0.8        | 1.0        | 1.0        | 0.7        | 0.6        |
| Israel         | 2.2        | 2.2        | 2.2        | 2.2        | 2.1        | 2.1        | 2.1        | 2.0        | 2.0        | 2.0        | 2.0        |
| Italy          | 0.8        | 0.8        | 0.6        | 0.6        | 0.6        | 0.6        | 1.5        | 1.3        | 1.6        | 1.6        | 1.3        |
| Japan          | 1.8        | 1.9        | 2.0        | 2.1        | 2.0        | 2.1        | 2.0        | 1.9        | 1.9        | 1.9        | 1.9        |
| <b>Korea</b>   | <b>0.7</b> | <b>0.9</b> | <b>0.9</b> | <b>0.8</b> | <b>0.7</b> | <b>0.7</b> | <b>0.7</b> | <b>0.8</b> | <b>0.8</b> | <b>0.8</b> | <b>0.8</b> |
| Latvia         | 0.6        | 0.5        | 0.4        | 0.6        | 0.7        | 0.8        | 0.8        | 0.8        | 0.8        | 0.8        | 0.9        |
| Luxembourg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 Mexico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          |
| Netherlands    | 0.6        | 0.6        | 0.6        | 0.7        | 0.7        | 0.7        | 0.7        | 0.8        | 1.0        | 0.9        | 0.9        |
| NewZealand     | 1.8        | 1.8        | 1.9        | 1.9        | 2.0        | 2.0        | 2.0        | 1.9        | 1.9        | 2.0        | 1.9        |
| Norway         | 0.3        | 0.3        | 0.3        | 0.3        | 0.3        | 0.3        | 0.3        | 0.3        | 0.4        | 0.4        | 0.4        |
| Poland         | 1.2        | 1.1        | 1.2        | 1.2        | 1.1        | 1.1        | 1.2        | 1.3        | 1.2        | 1.2        | 1.2        |
| Portugal       | 0.5        | 0.6        | 0.6        | 0.6        | 0.6        | 0.7        | 0.7        | 0.8        | 0.8        | 0.8        | 0.8        |
| SlovakRepublic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 Slovenia       | 0.4        | 0.4        | 0.4        | 0.5        | 0.5        | 0.5        | 0.5        | 0.6        | 0.5        | 0.5        | 0.5        |
| Spain          | 0.7        | 0.7        | 0.7        | 0.8        | 0.9        | 0.9        | 1.1        | 1.1        | 1.2        | 1.2        | 1.2        |
| Sweden         | 0.8        | 0.8        | 0.7        | 0.8        | 0.8        | 0.8        | 0.8        | 0.8        | 0.8        | 0.8        | 0.8        |
| Switzerland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                     |            |            |            |            |            |            |            |            |            |            |          |
|---------------------|------------|------------|------------|------------|------------|------------|------------|------------|------------|------------|----------|
| Turkey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3        | 0.3      |
| UnitedKingdom       | 3.0        | 2.9        | 3.0        | 3.2        | 3.2        | 3.2        | 3.2        | 3.2        | 3.1        | 3.1        | 3.1      |
| UnitedStates        | 2.7        | 2.8        | 2.8        | 3.0        | 2.9        | 2.8        | 2.7        | 2.7        | 2.6        | 2.5        | 2.5      |
| <b>OECD-Average</b> | <b>0.9</b> | <b>0.9</b> | <b>0.9</b> | <b>1.0</b> | <b>1.0</b> | <b>1.0</b> | <b>1.1</b> | <b>1.1</b> | <b>1.1</b> | <b>1.1</b> | <b>.</b> |

주)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그림 2>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 국제 비교(GDP 대비)

□ 기업의 부동산 보유 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외부감사대상 기업임
  - 분석대상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 23%임
  -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총자산 대비 약 21% ~ 22%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 같은 기간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총자산 대비 약 23% ~ 26%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 같은 기간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경우 총자산 대비 약 32% ~ 38%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경우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6> 연도별 총자산 대비 부동산 평균 비율

(단위 %)

| Panel A)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        |       |       |       |        |
|-----------------------|--------|-------|-------|-------|--------|
| 연 도                   | 표본 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 전체 |
| 2011년도                | 600    | 12.24 | 6.58  | 3.86  | 22.68  |
| 2012년도                | 599    | 12.25 | 6.79  | 3.73  | 22.76  |
| 2013년도                | 600    | 12.25 | 6.85  | 3.75  | 22.85  |
| 2014년도                | 606    | 12.42 | 7.01  | 3.79  | 23.21  |
| 2015년도                | 610    | 12.27 | 6.96  | 3.62  | 22.85  |
| 2016년도                | 615    | 11.95 | 6.81  | 3.53  | 22.28  |
| 2017년도                | 631    | 11.80 | 6.69  | 3.56  | 22.05  |
| Panel B)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       |       |        |
| 연 도                   | 표본 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 전체 |
| 2011년도                | 845    | 10.76 | 8.32  | 2.06  | 21.13  |
| 2012년도                | 877    | 10.65 | 8.82  | 2.25  | 21.71  |
| 2013년도                | 894    | 10.96 | 8.79  | 2.30  | 22.05  |
| 2014년도                | 905    | 11.06 | 8.98  | 2.40  | 22.44  |
| 2015년도                | 933    | 10.77 | 8.73  | 2.73  | 22.23  |
| 2016년도                | 950    | 10.20 | 8.30  | 2.95  | 21.45  |
| 2017년도                | 951    | 10.03 | 8.09  | 2.94  | 21.06  |
| Panel C) 코넥스 상장기업     |        |       |       |       |        |
| 연 도                   | 표본 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 전체 |
| 2011년도                | 60     | 11.12 | 14.20 | 0.00  | 25.32  |
| 2012년도                | 62     | 10.86 | 13.01 | 0.00  | 23.87  |
| 2013년도                | 72     | 9.78  | 13.04 | 0.18  | 23.00  |
| 2014년도                | 73     | 11.13 | 12.97 | 0.03  | 24.13  |
| 2015년도                | 82     | 10.83 | 12.86 | 0.70  | 24.38  |
| 2016년도                | 83     | 10.80 | 12.90 | 0.53  | 24.23  |
| 2017년도                | 82     | 11.71 | 13.98 | 0.67  | 26.36  |
| Panel D) 외부감사대상 비상장기업 |        |       |       |       |        |
| 연 도                   | 표본 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 전체 |
| 2011년도                | 11,520 | 20.18 | 12.53 | 0.21  | 32.92  |
| 2012년도                | 12,507 | 20.86 | 12.92 | 0.20  | 33.99  |
| 2013년도                | 13,404 | 21.50 | 13.28 | 0.23  | 35.01  |
| 2014년도                | 14,170 | 22.37 | 13.65 | 0.25  | 36.26  |
| 2015년도                | 14,933 | 23.36 | 14.13 | 0.27  | 37.75  |
| 2016년도                | 15,653 | 23.75 | 14.27 | 0.25  | 38.26  |
| 2017년도                | 16,022 | 24.14 | 14.46 | 0.28  | 38.89  |

- 우리나라 기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부동산의 부동산 평균 보유금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업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2011년 3,251억원에서 2017년 3,870억원으로 약 619억원 증가하였음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2011년 226억원에서 2017년 314억원으로 약 88억원 증가하였음
  -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2011년 39억원에서 2017년 60억원으로 약 21억원 증가하였음
  -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경우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2011년 158억원에서 2017년 202억원으로 약 44억원 증가하였음

<표 7> 연도별 부동산 평균 보유 금액

(단위 : 백만원)

Panel A)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 연도     | 표본 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
| 2011년도 | 600  | 173,433 | 117,079 | 34,611 | 325,123 |
| 2012년도 | 599  | 175,148 | 119,556 | 33,470 | 328,174 |
| 2013년도 | 600  | 181,570 | 126,204 | 33,769 | 341,543 |
| 2014년도 | 606  | 181,263 | 129,218 | 32,004 | 342,485 |
| 2015년도 | 610  | 204,864 | 139,558 | 31,460 | 375,882 |
| 2016년도 | 615  | 207,893 | 140,098 | 31,800 | 379,790 |
| 2017년도 | 631  | 205,329 | 146,877 | 34,786 | 386,992 |

Panel B)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연도     | 표본 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
| 2011년도 | 845  | 11,419 | 8,162  | 2,971 | 22,552 |
| 2012년도 | 877  | 11,530 | 8,993  | 3,370 | 23,893 |
| 2013년도 | 894  | 12,445 | 9,690  | 3,525 | 25,660 |
| 2014년도 | 905  | 13,116 | 10,410 | 3,497 | 27,024 |
| 2015년도 | 933  | 13,164 | 10,471 | 3,739 | 27,374 |
| 2016년도 | 950  | 13,608 | 11,047 | 4,238 | 28,893 |
| 2017년도 | 951  | 14,787 | 11,814 | 4,767 | 31,369 |

Panel C) 코넥스 상장기업

| 연도     | 표본 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
| 2011년도 | 60   | 1,825 | 2,100 | -     | 3,926 |
| 2012년도 | 62   | 1,864 | 2,184 | -     | 4,048 |
| 2013년도 | 72   | 1,815 | 2,143 | 69    | 4,028 |
| 2014년도 | 73   | 1,957 | 2,158 | 13    | 4,128 |
| 2015년도 | 82   | 2,389 | 2,415 | 119   | 4,924 |
| 2016년도 | 83   | 2,571 | 2,672 | 130   | 5,374 |
| 2017년도 | 82   | 2,916 | 2,955 | 170   | 6,041 |

Panel D) 외부감사대상 비상장기업

| 연도     | 표본 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
| 2011년도 | 11,520 | 9,756  | 5,571 | 435   | 15,762 |
| 2012년도 | 12,507 | 9,906  | 5,951 | 390   | 16,247 |
| 2013년도 | 13,404 | 9,997  | 6,115 | 571   | 16,683 |
| 2014년도 | 14,170 | 10,535 | 6,388 | 578   | 17,501 |
| 2015년도 | 14,933 | 10,872 | 6,598 | 605   | 18,075 |
| 2016년도 | 15,653 | 11,342 | 6,957 | 600   | 18,900 |
| 2017년도 | 16,022 | 11,938 | 7,581 | 656   | 20,176 |

-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부동산 처분액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부동산 처분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연간 평균 처분액은 약 10억원 ~ 19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최대 금액은 2011년 3,981억원임
  - 코스닥 상장기업 중 부동산 처분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연간 평균 처분액은 약 1억원 ~ 3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최대 금액은 2012년 448억원임
  - 코넥스 상장 상장기업 중 부동산 처분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연간 평균 처분액은 약 5백만원 ~ 1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최대 금액은 2013년 48억원임
  - 외부감사대상 비상장기업 중 부동산 처분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연간 평균 처분액은 약 2천만원 ~ 2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최대 금액은 2013년 1,953억원임

<표 8> 연도별 부동산 처분 평균액 및 최대값 현황

(단위 : 백만원)

Panel A)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 연도     | 표본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부동산전체 최대값 |
|--------|-----|-----|-----|-------|-------|-----------|
| 2011년도 | 600 | 687 | 149 | 650   | 1,486 | 398,117   |
| 2012년도 | 599 | -   | 61  | 1,129 | 1,191 | 232,827   |
| 2013년도 | 600 | 102 | 41  | 1,794 | 1,937 | 255,045   |
| 2014년도 | 606 | 39  | -   | -     | 39    | 5,761     |
| 2015년도 | 610 | 66  | -   | 1,687 | 1,753 | 297,138   |
| 2016년도 | 615 | -   | -   | 1,527 | 1,527 | 329,930   |
| 2017년도 | 631 | -   | -   | -     | -     | -         |

Panel B)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연도     | 표본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부동산전체<br>최대값 |
|--------|-----|----|----|-------|-------|--------------|
| 2011년도 | 845 | 96 | 28 | 195   | 320   | 27,393       |
| 2012년도 | 877 | -  | 19 | 149   | 168   | 44,839       |
| 2013년도 | 894 | 69 | 30 | 158   | 257   | 32,498       |
| 2014년도 | 905 | 64 | -  | -     | 64    | 20,020       |
| 2015년도 | 933 | 36 | -  | 138   | 175   | 30,372       |
| 2016년도 | 950 | -  | -  | 196   | 196   | 25,919       |
| 2017년도 | 951 | -  | -  | -     | -     | -            |

Panel C) 코넥스 상장기업

| 연도     | 표본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부동산전체<br>최대값 |
|--------|-----|-----|----|-------|-------|--------------|
| 2011년도 | 60  | 112 | 36 | -     | 148   | 3,610        |
| 2012년도 | 62  | -   | 30 | -     | 30    | 1,679        |
| 2013년도 | 72  | 102 | 38 | -     | 139   | 4,797        |
| 2014년도 | 73  | 7   | -  | -     | 7     | 510          |
| 2015년도 | 82  | 39  | -  | -     | 39    | 1,596        |
| 2016년도 | 83  | -   | -  | 5     | 5     | 449          |
| 2017년도 | 82  | -   | -  | -     | -     | -            |

Panel D) 외부감사대상 비상장기업

| 연도     | 표본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부동산전체<br>최대값 |
|--------|--------|-----|----|-------|-------|--------------|
| 2011년도 | 11,520 | 133 | 48 | 34    | 215   | 99,179       |
| 2012년도 | 12,507 | -   | 55 | 23    | 78    | 80,616       |
| 2013년도 | 13,404 | 136 | 48 | 31    | 215   | 195,390      |
| 2014년도 | 14,170 | 163 | -  | -     | 163   | 46,244       |
| 2015년도 | 14,933 | 184 | -  | 26    | 210   | 107,612      |
| 2016년도 | 15,653 | -   | -  | 22    | 22    | 36,127       |
| 2017년도 | 16,022 | -   | -  | -     | -     | -            |

-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부동산 취득액의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부동산 처분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연간 평균 처분액은 약 4억원 ~ 22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최대 금액은 2016년 1,349억원임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부동산 처분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연간 평균 처분액은 약 2억원 ~ 6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최대 금액은 2016년 590억원임
  - 코넥스 상장 상장기업 중 부동산 처분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연간 평균 처분액은 약 1억원 ~ 8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최대 금액은 2015년 212억원임
  - 외부감사대상 비상장기업 중 부동산 처분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연

간 평균 처분액은 약 3억원 ~ 8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최대 금액은 2016년 5,983억원임

<표 9> 연도별 부동산 취득 평균액 및 최대값 현황

(단위 : 백만원)

Panel A)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 연도     | 표본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부동산전체 최대값 |
|--------|-----|-----|-------|-------|-------|-----------|
| 2011년도 | 600 | -   | 1,482 | 773   | 2,255 | 90,618    |
| 2012년도 | 599 | -   | 1,037 | -     | 1,037 | 53,911    |
| 2013년도 | 600 | 765 | 613   | -     | 1,378 | 112,389   |
| 2014년도 | 606 | 476 | 528   | -     | 1,004 | 49,881    |
| 2015년도 | 610 | 278 | 448   | -     | 725   | 52,489    |
| 2016년도 | 615 | 435 | 394   | -     | 830   | 134,872   |
| 2017년도 | 631 | -   | 406   | -     | 406   | 54,655    |

Panel B)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연도     | 표본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부동산전체 최대값 |
|--------|-----|-----|-----|-------|-------|-----------|
| 2011년도 | 845 | -   | 476 | 141   | 617   | 38,357    |
| 2012년도 | 877 | -   | 578 | -     | 578   | 34,834    |
| 2013년도 | 894 | 249 | 307 | -     | 556   | 17,564    |
| 2014년도 | 905 | 281 | 358 | -     | 639   | 56,786    |
| 2015년도 | 933 | 158 | 281 | -     | 438   | 32,531    |
| 2016년도 | 950 | 353 | 230 | -     | 583   | 59,167    |
| 2017년도 | 951 | -   | 249 | -     | 249   | 15,588    |

Panel C) 코넥스상장 기업

| 연도     | 표본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부동산전체 최대값 |
|--------|-----|-----|-----|-------|-------|-----------|
| 2011년도 | 60  | -   | 304 | -     | 304   | 3,845     |
| 2012년도 | 62  | -   | 122 | -     | 122   | 2,220     |
| 2013년도 | 72  | 57  | 326 | -     | 382   | 7,728     |
| 2014년도 | 73  | 85  | 108 | -     | 194   | 3,257     |
| 2015년도 | 82  | 388 | 455 | -     | 844   | 21,242    |
| 2016년도 | 83  | 183 | 233 | -     | 416   | 6,871     |
| 2017년도 | 82  | -   | 130 | -     | 130   | 3,316     |

Panel D) 비상장기업 외부감사대상

| 연도     | 표본수    | 토지  | 건물  | 투자부동산 | 부동산전체 | 부동산전체 최대값 |
|--------|--------|-----|-----|-------|-------|-----------|
| 2011년도 | 11,520 | -   | 343 | 25    | 368   | 188,588   |
| 2012년도 | 12,507 | -   | 350 | -     | 350   | 85,461    |
| 2013년도 | 13,404 | 405 | 358 | -     | 763   | 146,932   |
| 2014년도 | 14,170 | 420 | 343 | -     | 763   | 175,186   |
| 2015년도 | 14,933 | 462 | 357 | -     | 820   | 102,365   |
| 2016년도 | 15,653 | 477 | 341 | -     | 819   | 598,294   |
| 2017년도 | 16,022 | -   | 321 | -     | 321   | 260,043   |

### Ⅲ. 기업의 부동산 취득 목적

#### □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기록됨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됨
  - 따라서 취득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됨
  
- 기업의 부동산 보유 및 처분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 Choi et al.(1991) 및 Jennings et al.(1996)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부동산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김지수와 정기웅(1993)의 연구에 의하면 부채사용이 높을수록 기업 부동산 보유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진다고 보고함
  - 김지수와 최정호(1995)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처분은 전반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킨다고 주장함
  - 정완성(2010)의 연구에 의하면 부동산 보유비율의 증가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
  
- 취득세가 포함되어 기록된 부동산 중 건물은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됨
  - 따라서 부동산에 포함된 취득세는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부됨
  - 다만,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매입가액과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취득세는 비용화되지 않음
  
- 세법상 기업이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손금산입을 통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게 됨

□ 투자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 기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기록됨
  -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됨
  - 따라서 취득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됨
  
- 기업의 투자부동산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 이해영과 조명호(2009)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 소유 부동산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투자부동산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김동욱과 김병곤(2015)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이 증가하는 경우 총자산에서 투자부동산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가치가 하락한다고 주장함
  - 강원철(2016)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 부동산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투자부동산의 경우 대기업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김진태와 배수진(2017)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보유한 투자부동산을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함
  
- 취득세가 포함되어 기록된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발생하지 않음
  
- 세법상 기업의 보유한 투자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 및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부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 IV. 정책적 제언

##### □ 취득단계에 있어 조세정책에 대한 제언

- 기업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따른 조세 중립성이 필요한가?
  - 기업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영업활동을 위한 부동산 취득 보다 투자활동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은 없는가?
  
- 취득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조세 중립성이 필요한가?
  -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중과세가 적절하다면,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고려할 필요성은 없는가?
  - 과밀억제권역 안 투자활동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 중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가?

##### □ 보유단계에 있어 조세정책에 대한 제언

- 기업 보유 부동산의 형태(유형자산, 투자부동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가?
  
-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진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가?
  - 보유 목적에 대한 차이(유형자산, 투잡부동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가?
  
- 보유 목적에 따른 부동산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법 규정이 적정한가?
  - 현행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가?

□ 처분단계에 있어 조세정책에 대한 제언

- 현행 법인의 부동산 처분시 적용되는 세율이 개인과 비교할 때 적절한가?
  -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은 10~25%를 적용받고 있으며, 추가과세 10%(투자목적 주택 양도시)를 적용 받음
  -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6%~42%를 적용받고 있음
  
- 기업의 부동산 처분시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할 필요성은 없는가?
  - 기업의 경우 부동산 처분시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음
  - 개인의 경우 부동산 처분시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규정이 있음
  
- 법인의 경우 부동산 처분시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등의 조정을 통해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은 없는가?



I 부 ▶ 14:30 ~ 15:40



## 분과별 논문발표 및 토론 I

|     |           |      |
|-----|-----------|------|
| 1분과 | 인사 · 조직 I | D403 |
| 2분과 | 재무 · 회계 I | D404 |
| 3분과 | 경영일반 I    | D407 |
| 4분과 | 신진학자 I    | D507 |

## 한국판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 척도(UPSB-K)의 타당화 연구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Unethical Pro-Supervisor  
Behavior(UPSB-K)

이강민\*, 전상길\*\*

### 요 약

직원이 자신의 상사를 위해 비윤리적인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은 직원, 고객, 조직, 주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했다. 첫 번째 척도 개발 단계에서,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 해외에서 개발, 검증된 척도를 검토해 한국어로 번안하고 전문가 그룹의 검증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했다. 두 번째 척도 타당화 단계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국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발한 한국판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했다. 먼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문항의 Cronbach  $\alpha$  값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과 각 유사 개념(비윤리적 친조직 행동,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상사지향 조직시민행동, 상사일탈)의 관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chi^2$  차이검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의 원인으로 알려진 상사동일시와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은 한국에서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을 측정하고 연구하는데 적합한 척도로 나타났다. 한국판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 척도의 개발, 타당화를 통해 한국에서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비윤리적 친상사 행동,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상사지향 조직시민행동, 상사일탈, 상사동일시, 척도타당화

\* 한양대학교 ERICA 산업경영연구소 조직과학혁신센터 연구교수(제1저자, kmrie@naver.com)

\*\* 한양대학교 ERICA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 sgjeon@hanyang.ac.kr)

## 조직정체성 조직동일시 및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장용선\*, 조대환\*\*

### 요 약

본 연구는 조직정체성이 조직동일시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회정체성 리더십이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주요 변수는 조직 정체성, 사회정체성리더십, 조직동일시 및 조직시민행동이 포함된다. 조직은 조직정체성과 사회정체성리더십을 통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1개 조직의 310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조직정체성강도는 사회정체성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체성 리더십은 조직정체성과 조직동일시 및 조직시민행동 간에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조직정체성은 조직동일시 및 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지며, 사회정체성리더십이 조직의 특성을 내부화한다면 조직구성원의 조직동일시 및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조직정체성, 사회정체성 리더십, 조직시민행동, 조직동일시

---

\*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제1저자, changk6567@chosun.ac.kr)

\*\* 조선대학교 경영학박사(교신저자, popcho10@gmail.com)

## 부정적 피드백으로서 상사의 비인격적 행동이 피드백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갑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

The effects of abusive supervision in negative feedback types on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a new approach about Gapjil

박경환\*

### 요 약

본 연구는 상사의 갑질을 부정적 피드백의 한 타입인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abusive supervision)으로 간주하였다. 상급자의 갑질은 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낸 하급자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상급자의 부정적 피드백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째, 상급자의 부정적 피드백 타입으로서의 비인격적 행동이 피드백 효과성(자아존중감, 피드백 수용, 자기개발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공감과 직면이라는 상급자의 부정적 피드백 타입을 함께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피드백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하급자의 대처방식 행동이 독립변수인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과 피드백 효과성 간에 조절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국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로부터 169개를 얻어 다중분산분석(MANOVA)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정적 피드백으로서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은 피드백 효과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다중분산분석을 통한 독립변수인 비인격적 행동(저,중,고 3집단)은 종속변수인 하급자의 자아존중감, 피드백 수용, 자기개발 동기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둘째, 상급자의 공감과 직면이라는 두 독립변수와 비교하여 비인격적 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는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이 유일하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p < .001$ ). 피드백 수용에는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과 공감 및 직면 모든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개발 동기에는 공감과 직면 변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조절변수 분석에서,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과 하급자의 충동적 대처는 상호작용하여 피드백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과 하급자의 회피적 대처는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피드백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부정적 피드백으로서의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은 하급자의 자아존중감을 훼손하고, 그 결과로 하급자의 피드백 수용도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하급자의 자기개발 동기에는 비인격적 행동보다는 상급자의 공감과 직면이 더 유의한 예측력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급자의 갑질을 부정적 피드백 타입으로서의 상급자의 비인격적 행동으로 간주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갑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 The Effect of IPOs and Cooperation Activities on Economic Performance and Job Creation of SMEs: Evidence from South Korea

Eunil Park\*, Sang Jib Kwon\*\*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initial public offerings (IPO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their efforts to cooperate with large conglomerates on SMEs' economic performance and job creation. This study conducted a series of analyses of variance with a 2 x 2 between-subject design (IPOs and cooperation with large conglomerat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credit ratings using 4,449 and 3,919 samples, respectively, of SMEs from the Korea Innovation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IPOs and cooperation with large conglomerat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job creation as well as multiple economic outcomes. Moreover, several scholars have argued that more accurate credit rating criteria should be proposed to evaluate the potential values of SMEs because the current criteria mainly focus on their short-term finan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is study found that IPOs have a negative effect on SMEs' credit ratings, whereas cooperation with large conglomerates and job creation have no effect and the growth rates of net income and current assets have a positive effect.

Keywords: IPO, cooperation, job creation, credit ra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

\* 고려사이버대학교(제1저자, parkh@cuk.edu)

\* Department of Interac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risktaker@dongguk.ac.kr)

## The Determinants of KOSDAQ Firm's R&D Expenditure

Jeon, Byung Moon\*, Yoon, Byung Sub\*\*, Lee, Jae Choon\*\*\*

### Abstract

In an increasing competitive environment, companies are all faced with strong need to come up with excellent new products and technology as well as improve their existing products to meet customer needs. Such innovation is a must for them to survive and prosper in the fierce competition. In this regard, expenditure in R&D appears to be an essential factor to enhance productiv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theoretical model to identify determinants of KOSDAQ-listed firms' R&D expenditure and offer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theoretical model through panel data analysis of panel data that includes both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of those companies. The empirical analysis had been conducted for 6 years from January 2011 to December 2016. Total 982 companies were selected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earch. Accounting data required for the research was extracted from KOCOINFO, a database provided by the Korea Listed Company Association.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ly, all variables excluding the sales growth rate and debt ratio make statistically meaningful factors explaining R&D expenditure. Secondly, the ratio of market value to book value, equity ratio of one large shareholder, net working capital ratio, and signs of regression coefficient to advertising expenses all go in line with the theory. The regression coefficient signs concerning company scale show negative value. Also, sales growth rate and debt ratio were found to have negative impact on R&D expenditure. Thirdly, the dummy variable on increase and decrease of market value to book value ratio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meaningful and has negative impact on R&D investment spending. Dummy variables on market value to book value ratio and increase and decrease of market value to book value ratio were statistically meaningful and have negative impact on R&D investment spending. The research is distinct from preceding studies in the following aspect. Firstly, it used panel data estimation methods to address heterogeneity issue which may occur from omission of variables not observed. Next, the research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f KOSDAQ-listed

---

\* Ph. D., President, CFO Academy CO., Ltd.(First Author, jbm@naver.com)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iversity(Co-Author, yoonbs@suv.ac.kr)

\*\*\* Associate Professor, Gangdong College(Corresponding Author, spring4548@hanmail.net)

firms during a recent six-year period.

Lastly, the research added dummy variables on increase and decrease of market value to book value and market value to book value ratio and also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at.

However, it has some limitations as below.

Firstly, it used figures in financial statements of KOSDAQ-listed companies to estimate their R&D spending. But there is a room for discrepancy between the estimation and the actual spending due to ambiguity in accounting management relating to R&D activiti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imate R&D expenditures with higher accuracy with other data and information in addition to financial statements.

Thirdly,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determinants of R&D investment and spending not measure and the actual R&D expenditure is not clearly explained herein. A more organized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variables and determinants.

The fourth is, if a company is under influence of other external factors such as economic slump, the validity and relevance of R&D expenditure model based on financial ratios would be affected. To complement this, a new model reflecting other financial and non-financial elements shall be established.

Keywords: KOSDAQ Firms, R&D expenditure, Market Value to Book Value Ratio, Panel Data, Panel Analysis  
Technique,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 이동통신원가 산정방안 연구

A Study on Calculation Method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Costs

고창열\*, 정진향\*\*, 천미림\*\*\*

### 요 약

2018년 6월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26%가 더 많다(인구수: 51,801,449명,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65,309,648명,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이동통신을 이용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는 이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속히 커져가고 있다.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보편요금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확정 판결(대법원 2018)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통신요금의 기반이 되는 통신원가의 적정성과 공개필요성 등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후에도 LTE서비스 원가정보공개 및 통신요금 인하로의 연계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2G·3G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높은 원가보상율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해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참여연대 2018).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보수율을 1% 낮게 책정했다면 국민 1인당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1만 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원가보상율이 통신요금을 결정하는 참고지표 중의 하나일 뿐 통신요금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디지털타임즈 2018). 실제로 가스, 전기, 철도 등의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보상율을 토대로 요금을 결정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은 원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자 계획,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다.

대법원의 판결 논거 중의 하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다. 2010년 7월부터 해당 공기업 홈페이지에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철도운임,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 5대 공공요금 관련 원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적용대상은 공익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등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이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요금에 해당하지만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과 이동통신요금 관련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 여주대학교 금융회계경영과 조교수(jeanhyang@naver.com)

\*\*\*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원가는 규제원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원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제원가 산정기준인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규제원가 산정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합리적인 규제원가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원가에서 비효율적인 원가요소가 무엇인지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제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동통신서비스의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금제별 원가 추정을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자회사와의 재판매대가로 인한 규제원가의 왜곡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금융비용 자본화의 경우 건설중인 자산이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미사용자산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매각시 처분이익을 규제이익에 가산해야 한다. 여섯째, 규제서비스의 요금수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수준의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법인세비용 산정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투자보수율 산정에 있어서 무위험자산수익률과 시장위험프리미엄 등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인은 규제원가 산정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의 차이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 규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규제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규제원가산정 시 재무회계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규제원가 산정방안에 대한 논의는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관련 원가정보의 공통점, 차이점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규제원가 산정방안을 통해 정부, 사업자 및 이용자 등 정보이용자들은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은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정보를 확보할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향후 공공요금 및 통신서비스 원가 산정방식 개선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udit Partner Industry Expertise and Accounting Comparability

안혜진\*, 최종학\*\*, 선우혜정\*\*\*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dividual audit partners and their industry expertise influence accounting comparability. We find that accounting comparability between two firms in a pair is higher when they are audited by the same audit partner than when they are audited by two different partners. We also find that only the same audit partner who possesses industry expertise shows such a rel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ect of increasing accounting comparability within a partner's clientele is driven by industry expertise of the individual audit partner. The industry expert audit partners use a distinct and consistent audit approach, generating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ir clients.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insight into why industry expert auditors provide superior quality audit service.

---

\* 홍익대학교 경영학 전공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hjsonu@knou.ac.kr)

## 韓國 블록체인 政策 어떻게 할 것인가?

Korea block chain policy What will be done?

姜 哲 勝\*

### 요 약

국내에서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효과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코스피시장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인증효과연구는 매우 드물고, 그것도 과거 2000년 전·후의 소수 표본을 사용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코스피시장을 대상으로 2000.1-2015.12 기간의 표본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점별 초과 수익률에 대해 평균값과 중앙값을 이용한 정량분석과 함께 신규공모기업의 저가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는 물론 산업별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피시장에서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인증효과를 발견한 오세경·한형호(2014), 송치승·이영주(2018)와는 대조를 이루는 결과이다. 오히려 2000년 전·후의 코스피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이기환 외 2인(1998), 장상욱·길재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점이 놀랍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발견은 발행기업의 저가발행원인으로 지적되어온 2007년 6월 풋백옵션제도폐지 이후 저가발행 축소정도가 벤처기업에는 나타나지 않고 비벤처기업에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며,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발행기업 모두 풋백옵션제도폐지 이후 저가발행정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한 송치승·이영주(2018)연구결과와 비교가 된다.

핵심 주제어 : 코스피시장, 벤처캐피탈, 벤처기업, IPO 저가발행, 정보비대칭

---

\* 中央大 教授(cskang46@naver.com)

## 모바일 환경에서 관광상품 충동 구매에 대한 평가

### Assessing the Tourism Product Impulsive Buying in Mobile Environments

정남호\*, 엄태휘\*\*

#### 요 약

온라인 환경이 활성화되고 모바일 기기 사용의 증가에 따라,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관광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관광 상품에 대한 충동구매가 증가하고, 온라인 여행사 역시 소비자들의 충동적 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활용한 혼합적 연구방법을 통해 모바일로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충동구매 요인을 확인한다. 먼저 모바일 쇼핑 동기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추출된 동기들을 가지고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 분석을 했다. 인터뷰를 통해 모바일 사용 동기 네 가지를 모바일 특성인 편리함과 유비쿼티, 거래 특성인 인지된 가치, 특별 프로모션 알림으로 추출했다. 이후 개인의 충동성을 추가하여 5가지 요인이 충동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426개)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테스트하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모바일 특성 두 가지는 인지된 가치를 통해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거래 특성 두 가지와 충동성이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여행사와 관련 실무자들에게 실무적 시사점 및 연구의 이론적 기여를 논의한다.

---

\*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nhchung@khu.ac.kr)

\*\* 경희대학교 대학원 호텔경영학과 박사과정(thum@khu.ac.kr)

## 기업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강무희\*

### 요 약

기업이미지는 마케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미지는 기업의 자산적 가치와 브랜드로 인한 기업의 매출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이미지는 소비자들이 기업브랜드에 대한 일반적으로 갖는 인식과 느낌으로 정의된다. 회사의 마케팅의 행동 목표는 기업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도록 하며,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 제품에 대한 실제 구매행동을 자극시켜서 시장지분을 확대시키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업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자극시키는 것인가를 설문자료와 인터뷰자료를 SPSS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기업이미지, 브랜드충성도, 구매의도 소비자행동, 소비자태도

---

\* 배재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강사 (제1저자, kangmuhee88@naver.com).

## Experiential Rewards in Loyalty Programs

Jungyeon Sung\*, Seung-Bae Park\*\*

### Abstract

In recent, the loyalty program of corporate has interested in focusing on unique experiences, rather than accumulated points or financial discount. The experiential rewards are leading for the future of loyalty programs as the new way for customer relationship and retention.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to proof the effectiveness and value of experiential reward as incorporating strategies in the basis of consumer's psychological process. That is, previous studies have been interested in responding to consumers' reward acquisition.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consumers' use of rewards compared with prior researche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investigating the value and determining of experiential reward based on motivation for experiential consumptio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reward programs considering new trend and consumer preferences for long-term relationship.

Keywords: Experiential reward, loyalty program, consumer preference, motivation

---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l University(jysung@sungkyul.ac.kr)

\*\* Department of System Management, Seoil University(sbpark@seoil.ac.kr)

## 구성원의 일-가정균형만족이 육아휴직제도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주연\*, 오한결\*\*

### 요 약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태에 따른 보고서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 성인 2천명 중 87.4%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4.8%,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62.6%였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3%,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94.5%에 달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실증적 및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한 일-가정균형만족, 가정친화적 조직지원인식, 가정친화적 상사지원인식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모색하고자 20대부터 50대까지 자녀가 있는 기혼 직장인 여성과 남성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일-가정균형만족이 육아휴직제도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친화적 조직지원인식은 육아휴직제도 사용의도를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가정친화적 상사지원인식이 일-가정균형만족과 가정친화적 조직지원인식을 조절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직 내 문화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견과도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증결과 사회적 권리인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의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며, 일-가정균형만족과 가정친화적 조직지원인식, 가정친화적 상사지원인식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확장한다는 학문적 함의를 가진다.

주제어: 일-가정균형만족,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의도, 가정친화적 조직지원인식, 가정친화적 상사지원인식.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 직장 내 감정노동에 대한 질적연구: 비서직 종사자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Emotional Labor in the Workplace  
among Secretaries

김민아\*

### 요 약

본 연구는 비서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직장 내 감정노동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토대로 비서직 종사자들이 직장 안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 행동,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무경력 1년 이상의 전·현직 비서직 종사자 15명을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적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대일 심층면접(depth interview)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 (1966)의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의 세 과정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이나 상황에서 감정 반응에 대한 결과까지 크게 두 가지 패턴의 감정노동 프로세스가 도출되었다. 먼저 비서의 감정 반응 현상이 크게 긍정 감정 반응현상과 부정 감정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감정현상이 긍정 감정현상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감정 반응에 있어, 상사의 칭찬 및 인정이 가장 높은 긍정 감정 유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서 업무 관련, 조직원들의 칭찬 및 인정, 근무 조건 및 환경의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 감정은 감사로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전이되거나 증폭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나타난 긍정 감정 반응의 결과는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임하거나 동기부여를 가져와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삶에도 일을 통한 자신감으로 가정 및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정적 감정 반응 현상을 유발하는 인과적 조건이 되는 요인은 크게 상사, 조직원, 비서 업무, 조직요인의 4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 중에서 상사로부터 발생한 사건 및 상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상사의 욕설, 화풀이, 성희롱, 무시 등의 비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업무 및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괴감, 불안감 등은 자연스럽게 업무 의욕 저하, 업무 태만으로 나타났고, 퇴직 및 이직 의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이나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감정노동을 겪는 것에 비해서 비서들은 감정노동에 대응하는 방식은 대부분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비서직 종사자들은 취미생활, 마인드 컨트롤 등 비서 개인적 차원과 상사 및 조직내 인간관계, 보상

\* 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alsdk0108@naver.com)

및 복지 등 조직적 차원에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비서의 감정노동의 선행요인부터 대응방식인 상호작용, 감정 반응에 대한 결과, 중재적 요인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적 관점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고객응대 서비스직 종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감정노동연구에서 직장 내 감정노동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감정노동의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비서직 종사자들이 겪는 직장 내 감정노동의 과정을 전체적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여주어 감정노동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고, 직장 내 사무직 근로자들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감정노동의 실천적 해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The Determinants of Bank Profitability: Evidence from Listed Banks in Mongolia

Yong Jae Shin\*, Tsetsegdelger Khishigdelger\*\*

##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fitability of Mongolian banks for the period of 2010-2018 and examine an efficient way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banks in Mongolia. We use panel data analysis for our empirical study. We select dependent variables as ROA(return on assets), ROE(return on equity), and NIM(net interest income) and independent variables as capital ratio, asset composition, firm size, taxation, and macroeconomic variables based on the related studies. This study is the among the first to examine the determinant of profitability in Mongolian banks.

## Contents

|                              |                      |
|------------------------------|----------------------|
| I. Introduction              | V. Empirical Results |
| II. Mongolian Banking System | VI. Conclusions      |
| III. prior studies           | <References>         |
| IV. Methodology              |                      |

---

\* Hankyong National University(uunuukhishge@gmail.com).

\*\* Hankyong National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yjshin@hknu.ac.kr).

## 베이비시터 이용경험에 대한 연구 - 사회적기업과 타기관 서비스의 현황과 비교 -

최지연\*, 이미지\*\*, 신정아\*\*\*, 조한나\*\*\*\*, 조희주\*\*\*\*\*, 곽원준\*\*\*\*\*

### 요 약

본 연구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에서 육아를 위해 고용하는 베이비시터 이용경험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적 기업과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베이비시터 제공 서비스를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적 기업의 베이비시터 서비스 발전방향을 수립함을 목적하였다.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관찰과 자료를 근거로 귀납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이론적 표집 방법으로 베이비시터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구술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택하였는데,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위탁기관, 민간 기업,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운영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1)베이비 시터시장의 문제점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지만 무료채용의 경향이 증가함, 2)시장의 외적 어려움은 관할기관 지원의 미흡함과 낮은 실효성, 3)시장의 내적 어려움은 협력부족과 영세하고 열악한 조직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베이비 시터 이용의 문제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 취약한 인적자원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역량과 소속감 문제, 2)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구인자의 기대 및 행동, 3)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이해의 부족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시터 이용의 문제현상은 다음과 같았다. 1) 베이비시터의 낮은 업무역량과 몰입감, 2) 베이비시터 이용자의 부적절한 기대와 행동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시터 이용경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직접 고용과 이에 수반하는 4대 보험 등 고용안정성의 증진, 2) 효과적인 인사관리와 교육 훈련을 통한 우수한 베이비시터 인적자원의 확보 및 개발, 3)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자에 적절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다.

---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Ⅱ부 ▶ 15:50 ~ 16:50

 **분과별 논문발표 및 토론 Ⅱ**

|     |         |      |
|-----|---------|------|
| 1분과 | 인사·조직 Ⅱ | D403 |
| 2분과 | 재무·회계 Ⅱ | D404 |
| 3분과 | 경영일반 Ⅱ  | D407 |
| 4분과 | 신진학자 Ⅱ  | D507 |

## 전문대학 교수의 역할인식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

윤필현\*

### 요 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수의 역할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그리고 역할과중을 들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문직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위 척도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전문대학 교수의 셀프리더십이 이들 관계에 조절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역할문제인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중은 전문직 정체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셀프리더십 변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을 통한 전문대학 교수의 전문직 정체성 증진과 관련된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전문대학 교수,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중, 셀프리더십, 정체성

---

\* 인하공업전문대학 직업교육지원센터(yph333@naver.com)

## 벤처중소기업 노동자의 4차 산업혁명 활용 및 인지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임진혁\*, 이장희\*\*, 권혁\*\*\*, 김재형\*\*\*\*

### 요 약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산업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업 경영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는 조직에서 노동자 자신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중소기업 노동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활용의도가 자신의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변화의 시대, 변화 가운데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가정신이 더 강조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의 4차 산업혁명 인식 및 활용의도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벤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의 인식도 활용의도, 자신의 기업가적 지향성(기업가정신), 자신의 직무성과 등에 대해 2017년 9월 ~ 12월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SPSS를 활용한 회귀분석,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벤처중소기업 노동자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도는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가정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도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동자의 4차 산업혁명 활용의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노동자의 4차 산업혁명 활용 의도는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기업가정신에는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실증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및 활용수준이 자신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의도는 자신의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동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거나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실제 활용도나 적용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자의 기업가정신은 이들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변화를 인식하고 반응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가정신은 변화하는 시대 노동자들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산업진흥원

##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결정요인 패널분석

송민수\*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불만 가설과 유효성 가설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원청 사업장의 특성과 사내하청 노조 설립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3~5차년도(2009~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영향요인을 횡단면 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산재인정 근로자 수, 다수사업장, 공공부문, 재무성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사내하청 노조 설립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근로자 대상 복지정책은 부(-), 우호적 노사관계는 정(+)의 방향성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핵심 주제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접고용 비정규직, 패널 확률효과 모형

---

\* 한국노동연구원(song@kli.re.kr)

## 조세회피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ost of Debt

김승희\*, 이장희\*\*, 차종우\*\*\*

####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tax avoidance)가 부채차입 시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앞서의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타인자본비용의 대응치로는 부채차입이자율과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를 이용하였고, 조세회피의 측정은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추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첫째,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인 BTD(Book-Tax Difference)를 Desai and Dharmapala (2006) 연구에서와 같이 총 발생액에 관한 회귀한 잔차를(TAXAV1)로 추정하였으며 둘째, Ayer et al.(2009)이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한 5년 누적 유효법인세율을(TAXAV2)로 추정하였으며 셋째, 심충진(2011)의 연구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한 5년간의 법인세 부담액을 기준으로 측정한 실제법인세 비용을 이용한 누적 유효법인세율을(TAXAV3)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하였고, 금융업과 자료 입수가 불가능한 기업을 제외한 최종표본은 각각 2,520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조세회피 대응치 TAXAV1, 2, 3에서 타인자본비용 COD1과 COD2 과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한 결과는 조세회피 행위를 통해 파생된 기업내부 현금흐름의 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이러한 현금흐름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이 우호적이어서 자본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결과이므로 조세회피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반응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주제어: 조세회피, 타인자본비용, BTD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강사(제1저자, acecow71@hanmail.net).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교신저자, janghee@chungbuk.ac.kr).

\*\*\* 충북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공동저자, cadet37@naver.com).

## 전력시장 운영현황과 민자 LNG 발전소 손익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fit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operating status of  
electric power market and civil LNG power plant

하진환\*

### 요 약

민자 LNG 발전사업자는 SMP(계통한계가격)로 제시되는 변동비와 CP(용량가격)로 설명되는 고정비를 전력거래를 통하여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관련 에너지정책시스템은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민자 LNG발전소에 대해서는 원가 보증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신설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LNG를 공급받고 있는 신규 민자 LNG발전소들은 매년 순손실을 기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신규 건설된 민자 LNG발전소의 손익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LNG 연료를 한국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발전사와 영업실적을 비교 분석 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원별의 설비용량 분석과 전력거래량의 추이 및 연도별 최대전력수요까지도 분석하여 SMP(계통한계가격)와 CP(용량가격)가 적절하게 책정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 하였다. 신규 민자 LNG 발전소의 손익분석에서는 이자보상비율을 분석하여 과연 영업이익으로 발전소 건설당시 차입한 이자비용을 감당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LNG 발전연료를 직도입하는 발전사들과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건설되어 상업운전중인 수도권 4개의 LNG 민자발전소와 LNG를 해외에서 직도입하고 있는 3개의 민자 발전소 등 총 7개의 민자 LNG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파산 일보직전인 민자 LNG발전소의 경영정상화의 해결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에 건설하여 상업운전중인 신규 LNG 민자발전의 손익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신규 민자 LNG발전사의 도산을 방지하고 민자발전사들이 계속 성장해야 새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 대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 R&D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 KOSDAQ기업을 중심으로 -

이재춘\*, 주명수\*\*

### 요 약

연구개발비투자는 무형자산의 가치창출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연구개발비투자지출은 공정혁신,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품질개선,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KOSDAQ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 설정,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 결합, 패널자료분석법 이용, 모형분석 등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이다. 선정된 최종표본은 973개 기업이다.

연구개발비투자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 성장률, 부채비율을 제외한 전 변수들이 기업가치를 설명하여 주는 유의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매출액성장률에 대한 회계계수의 부호는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에 대한 회귀계수 부호는 기대와 달리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연구개발투자지출, 순운전자본지출, 기업규모, 광고비지출에 대한 회귀계수 부호는 이론과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대주주 1인 지분율은 유의적인 부(-)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투자는 미래의 수익이 불확실한 투자이다. 넷째, 연구개발비투자지출증감률 가변수는 유의적이고,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연구개발비투자는 무형자산의 가치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다섯째, 연구개발투자지출과 연구개발비투자지출증감률 가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고 기업가치에 부(-)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KOSDAQ 상장기업들은 연구개발비투자지출을 전년도 보다 더 증가시킬 경우, 기업가치를 증가시키지만, 그 증가율은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주제어: KOSDAQ 상장기업, 연구개발투자지출, 패널자료분석법, 고정효과모형

###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문헌연구     | 〈참고문헌〉     |
| III. 연구설계    | 〈Abstract〉 |
| IV. 실증적 분석결과 |            |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부교수

\*\* 강남대학교

## IMF 외환위기와 한국재벌의 조직변화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Organizational Shift of Korean Chaebols

황재원\*, 박경미\*\*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각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그룹의 조직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그룹 본부와 계열사의 관계, 즉 계열사에 대한 그룹본부의 집권화를 결정하는 지배적 요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계열사에 대한 그룹본부의 집권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기업 수준의 관점과 사업부 수준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 수준의 관점은 그룹 전체의 다각화 전략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그룹본부의 집권화가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반면, 사업부 수준의 관점은 계열사의 경쟁전략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그룹본부의 집권화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각 이론이 가지는 타당성이 그룹 외부의 전반적인 환경적 상황과 그룹본부와 계열사 간에 형성된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론들 간의 통합과 절충을 모색하였다. 또한 그룹 수준의 다각화전략과는 별개로 계열사 수준의 상호연결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더라도 계열사에 따라 다른 계열사와의 관련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연결성이 집권화에 대한 다각화전략 혹은 경쟁전략의 영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고 그룹본부에 대한 계열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그룹 수준의 다각화전략이 집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반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그룹본부에 대한 계열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열사 수준의 경쟁전략이 집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연결성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집권화에 대한 다각화전략의 영향을, 외환위기 이후에는 집권화에 대한 경쟁전략의 영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 전후로 계열사에 대한 그룹본부의 관리방식이 획일형에서 계열사군 별 맞춤형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열사 수준의 관련성인 상호연결성이 그룹본부의 관리방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다각화, 상호연결성, 집권화, 외환위기, 재벌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전공 부교수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과 부교수

##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Cho Jungeu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related-party transactions impact firms' asymmetric cost behavior. Related-party transactions are defined as transactions between a company and its principal shareholders, directors, or affiliated companies and subsidiaries. We find that firms with higher level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present greater cost stickines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outside stakeholders caused by related-party transactions triggers managers to maintain unutilized resources even when demand falls so that they can maximize their personal utility, resulting in cost asymmetry. We also find that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firms with high pro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lead to greater cost stickiness. This implies that largest shareholders are more likely to involve in related-party transactions to retain firms' existing resources in order to maximize their private interest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tant literature by providing additional evidence that related-party transactions which exacerbate agency problems may lead to cost stickiness.

Key words: Related-party Transactions, Asymmetric Cost Behavior,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밀레니얼세대의 조직갈등이 조직몰입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수평적·수직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nfli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ife Satisfaction for Millennial Generation : Mediating Effec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mmunications

김경진\*, 전순영\*\*

### 요 약

최근 기존과는 전혀 다른 특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세대가 사회에 진출하여 조직의 주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문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조기퇴직률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전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의 주체로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에 진출한 밀레니얼세대가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조직 갈등과 조직몰입, 의사소통 그리고 생활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밀레니얼세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조직갈등, 조직몰입, 의사소통 및 생활만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조직 내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갈등과 조직몰입에 대한 분석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관계갈등과 과업갈등 모두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 갈등과 생활만족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직갈등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조직갈등과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이 수평적 의사소통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직적 의사소통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조직 갈등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역할 수행에 대한 분석 결과는 수평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할 경우는 유의미하였고, 수직적 의사소통의 매개로 할 경우는 무의미하였다. 다섯째, 조직 갈등과 생활만족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은 수평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할 경우는 유의미하였으나, 수직적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과업갈등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밀레니얼세대는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몰입과 생활만족이 자연스럽게 상승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조직변화와 개인의 발전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세대들의 안정된 사회정착 및 향후 주요한 인적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는 새로운 근무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밀레니얼세대를 중심으로 조직갈등, 조직몰입, 생활만족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수평적·수직적 의사소통이 각 변인 사이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조직갈등, 조직몰입, 생활만족, 수평적 의사소통, 수직적 의사소통, 밀레니얼세대, 비정규직

## 한국과 베트남 가상 화폐 거래소 선택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ection Factors of Virtual Currency Exchange between Korea and Vietnam

NGUYEN THI THU HOAI\*, CHOONGSEOK LEE\*\*

#### 요 약

최근 암호 화폐 사용자 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주식은 지정된 단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어 거래 종목(주식)만 선택하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되지만 암호 화폐는 다양한 거래소에서 다양한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어 가상 화폐 투자자는 투자를 위한 가상 화폐 선택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선택이 필요하다. 동일한 가상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 화폐 거래소라도 상호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의 선호도에 맞는 최적화된 가상화폐거래소 선택이 필요하며, 선택 요인에 대한 제시와 모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투자자 또는 예비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 화폐 투자 거래를 위한 거래소 선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상호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다음의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기존 연구 조사를 통하여 투자자 관점에서 거래소 선택요인을 도출 하였다. 2) 도출된 선택요인에 대한 중요도 파악을 위해 한국(205명) 베트남(251명)의 투자자와 예비 투자자를 대상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3)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도출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도출된 가상 화폐 거래소 선택요인은 2단계(3 분류, 11 세부요인)로 구성된다. 분류에는 시스템, 사용자, 서비스가 포함된다. 시스템에는 속도, 가용성, 보안성이, 사용자에는 가상 화폐 다양성, 거래량, 주변인식, 친숙도로 구성되며 서비스에는 접근성, 전자지갑유무, 고객센터, 수수료가 포함된다.

연구분석 결과 11개 요인에서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한국에서 보안성(0.213), 속도(0.129), 거래량(0.117), 가용성(0.115) 순이며, 베트남에서는 보안성(0.2426), 가용성(0.1153, 속도(0.0914), 고객센터(0.0912)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성이 한국과 베트남 모두 1순위로 분석되었으며, 한국보다는 베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거래량의 경우 3위였으나, 베트남의 경우 11위로 낮게 나타났고, 한국의 고객센터 10위였으나 베트남의 경우 고객센터가 4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에 신규거래소 서비스를 한다면 거래량에 대한 중요도가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고객센터 측면에서 마케팅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 국가에서 신규 또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시 사용자 관점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반영한 거래소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 선호도에 기반한 최적의 거래소 추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향후 응답자를 응답자 유형별로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연구를 보완하고 사용자 유형별 세부 분석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 도덕적-방해적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리더십 최적 매칭의 조절효과 -소상공인의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박지선\*, 신호철\*\*

### 요 약

본 연구는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기반을 두어 기존의 직무 스트레스를 도전적 및 방해적 스트레스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요인으로서 각각에 과업지향 및 관계지향 리더십을 매칭하여 조절효과를 측정하였다. 첫째, 도전적 및 방해적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차별적인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도전적 스트레스는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했으며, 방해적 스트레스는 이직의도를 증가 시킬 것으로 예측 하였다. 둘째, 이러한 스트레스의 다른 형태를 고려하여 각각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매칭하기 위해 도전적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는 과업지향 리더십에 의해 강화될 것이며, 방해적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는 관계지향 리더십에 의해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직율이 높은 소상공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업원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도전적 및 방해적 스트레스 모두 이직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업지향 및 관계지향 리더십 모두 이직의도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전적 및 방해적 스트레스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도전적 스트레스, 방해적 스트레스, 과업지향 리더십, 관계지향 리더십, 이직의도

---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 국내 생명보험사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에 관한 연구

어윤수\*, 신용재\*\*

###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 및 생산 효율성을 분석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DEA모형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사업비, 모집인과 임직원수를 합한 총 인원수를 투입변수로, 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 투자영업이익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보험사의 생산성은 매년 10% 높게 나타났다. 둘째, 투입기준 DEA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CCR모형의 경우 1개사만 효율적인 것에 비해 BCC모형의 경우 3개사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DEA-Window 분석 결과, 분석기간 5년간 5개사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산출한 효율성의 대표 값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측도인 표준편차, LDY(Largest difference between scores in the same year), LDP(Largest difference between scores across the entire period) 관점에서도 분석기간 동안 5개사가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자료포락분석(DEA), 생명보험사, Malmquist 지수, Window, 효율성, 생산성

### 목 차

|                           |                  |
|---------------------------|------------------|
| I. 서론                     | IV.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목적           | V. 결론            |
| 2.1 DEA모형 이론              | 5.1 연구요약 및 시사점   |
| 2.2 DEA모형에 의한 Malmquist지수 | 5.2 연구의 한계점      |
| 2.3 DEA모형에 의한 Window분석    | <참고문헌>           |
| III. 연구설계 및 설계            |                  |

\* 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제1저자, ysah1004@naver.com)

\*\* 한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yjshin@hknu.ac.kr).

# A Study on Employee's Creativity and Core Self-Evaluations: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Culture and Supervisor's Emotional Intelligence

원윤정\*, 백지연\*\*

## Abstract

Creativity is becoming an employees' core competency. Due to fierce competition and rapid change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and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the firms are making effort to enhance creativity of employee. Creativity motivates employees to achieve and challenge their goals in most contemporary organizations and leads to organizational change and innovation. To explore creativity among employees, the adapted Woodman's Interactional Model of Creativity (1993) was used in the current study, which presents the interaction in the personal and contextual factors that affect crea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core self-evaluations and creativity and to measur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learning culture and the supervisor's emotional intelligence.

A survey collected from 347 employees working in Korea was used for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employee's core self-evalua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creativity. However, the organizational learning culture and the supervisor's emotional intellige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core self-evaluations and creativ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help bring better understanding of employees' creativity in the interactional perspective and core self-evaluations and will provide useful suggestions to develop the training program for the employee's creativity and the core self-evaluations.

---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교수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 연구에 관한 연구

박순봉\*, 신용재\*\*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증권형(주식형,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과 크라우드펀딩의 효율적 자본시장 역할 및 역할 수행의 주요 동력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출범 후 2018년까지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 401개 데이터 세트를 실증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펀딩 성공, 실패에 있어 독립변수인 일반투자자수, 소득적격투자자수, 모집금액, 소득공제 혜택과 조절변수인 전문투자자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독립변수인 일반투자자수, 소득적격투자자수, 모집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주식형 펀딩 성공률은 전문투자자 참여 시 89%, 비참여 시 40%, 채권형 펀딩 성공률은 전문투자자 참여 시 85%, 비참여 시 46%로 전문투자자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전문투자자 조절효과의 존재 여부를 살펴본 뒤, 효율적 자본시장을 위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일반투자자를 리드하는 전문투자자의 신호 및 인증효과, 역할 증대 방안,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 주제어: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성공요인, 전문투자자, 정보 비대칭성

### 목 차

|                   |                      |
|-------------------|----------------------|
| I. 서 론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5.1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의 연구결과 |
| III. 연구모형 및 가설    | 5.2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연구결과 |
| IV. 연구방법          | 5.3 비교분석             |
| 4.1 연구 설계         | VI. 결론               |
| 4.2 분석 방법         | <참고문헌>               |

\* 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제1저자, bookid@megab2b.com)

\*\* 한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yjshin@hknu.ac.kr)